



가까워진
천국

김병숙
지음

3월 무학과

가까워진 천국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명숙
저
음

가까워진 천국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46-1



머리를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추수하는 일꾼이
샅을 받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 씨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
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맞다. 이는 씨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
이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다.....요한복음 4장



< 서문 >

영적 과학, 혹은 정신적 과학이란 인간의 신에 대한 과학이며, 사회적 과학이란 인간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들이 발전을 이룩해야 자신의 발명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지구 상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국가와 국민들 사이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관점을 당신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전체로 합일되지 않는 한, 그리고 대부분의 지구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¹⁾

이상은 우주인 알렌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가까워진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시작했지만 천국은 결코 완성된 제품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천국건설을 위해 전체로 합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 문제일 것이다. 인구증가와 함께 필요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핵융합 기술에 도달해야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지구에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융합은 핵폭발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실험과정에 위험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우주적 환경에서의 위험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앞으로의 보병궁 2천년 동안 지구는 반듯이 우주 선진문명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로마 시대에 원로원이라는 제도가 있었듯이 우주의 개발도상 행성들은 대부분 선진문명으로부터 초대된 ‘자문관’ 제도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우주적 ‘자문관’을 모실만한 행성적 기초작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1) 새천년 간 ‘UFO와 외계문명의 메시지’에서 인용.

에 있는 것이다. 그분들은 결코 오늘의 지구 같은 행성에 자문관으로 오실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의 전체로 합일되지 않는 한.....우리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2)

저자 김 병 숙

(사용된 인용문과 조각그림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후에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새천년 간 'UFO와 외계문명의 메시지'에서 인용.



< 차례 >

1부 가까워진 천국

1. 주-임마누엘 대사의 메시지...../15
2. 미카엘 대천사, Lord God
3. 우주인 예수, 사난다
4. 태양신 헬리오스와 베스타
5. 아쉬타 사령관
6. 사나트 쿠마라 대사...../41
7. 고타마 붓다의 메시지
8. UFO 다크 프로그램들
9. 색즉시공, 공즉시색
10. 성 저메인 메시지
11. 엘-모리아 대사...../56
12. 쿠투후미 대사와 타지마할
13. 듀얼 쿨 대사와 공자
14. 관세음보살의 메시지
15. 동물성과 신성 사이에서
16.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71
17. 빛의 교합과 물질의 교합
18. 천국의 문과 계단
19. '너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
20. 두개의 얼굴을 가진 태양
21. 우주의 원앙새와 황조롱이...../89
22. 인간적 진화와 문명적 진화
23. 창조주 그분의 시각으로
24.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25. 지구의 삶과 새로운 정부
26. 태양의 여신을 기다리며...../109
27. 4차원적 지식
28. 쌍둥이 지구와 우리의 미래
29. 토성과 스포츠맨십
30. '천국은 당신들 안에 있다.'...../120
31. 천국건설을 위한 기초작업
32. 난세의 정의와 불의, 양심과 비양심
33. 별의 씨앗과 빛의 일꾼들
34. 뉴에이지 운동의 개요...../134
35. '이름과 번호가 없는' 우주 시민들
36. 통합되는 태양계
37. 줄서기가 아니라 뇌파의 문제다.
38. 재림사무국을 소개합니다.
39. 편가름이 아니라 '앎'의 문제다./149
40. 트럼프와 미국의 딜레마
41. 핵물질과 미생물과 오리지널 유전자
42. 장미의 가시와 민주주의의 가시
43. 놀라운 축복, 새 구세주의 시대
44. 유랜시아서와 지구의 운명...../166
45. 몬조론손 판사님의 메시지
46. 미드웨이어와 몬조론손 판사
47. 대량살상과 공공의 적
48. 동쪽에서 떠오를 태양...../180
49. 함께 기뻐하기 위함
50. 그날이 오면
51. 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
52. 천년왕국과 후천5만년
53.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203
54. 행성 나라 나의 운명
55. 오늘과 미래를 염려하며

2부 새시대 질서

- 1.네사라 계획과 지구의 하나됨
- 2.신께서 마련하신 최대의 계획은
- 3.진화주의와 反-진화주의...../222
- 4.에이펙스 행성과 지구의 현실
- 5.간디의 저항운동과 지구의 현실
- 6.지구의 좌표와 독립의지
- 7.트럼프의 강경론과 미국정신./235
- 8.난세의 혼란과 경천애인 정신
- 9.혜성과 지구의 운명
- 10.토성과 사투르누스 신
- 11.영적,정신적 과학, 사회적 과학
- 12.데이토 교수의 미래학...../251
- 13.정의란 무엇인가
- 14.담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 15.당근과 채찍
- 16.유대인 아눈나키 프리메이슨
- 17.앙카라 동맹과 매트릭스..../266
- 18.2가지 길에서의 씨스템적 변화
- 19.피할 수 없는 '신성한 간섭'
- 20.우주의 보수, 진보주의
- 21.행성적 인격...../279
- 22.'하나됨'을 위한 첫걸음
- 23.시리아 문제와 UFO 문제
- 24.통치는 곧 봉사다
- 25.토성과 태양계 법정...../294
- 26.공산정권과 지구의 현실
- 27.광자대를 떠나는 여행
- 28.역사에 묻힌 보석들
- 29.지구를 망치고 있는 영화들
- 30.초신성과 블랙홀...../311
- 31.시대의 빼어로들
- 32.영웅적인 지도자들을 고대하며
- 33.프랑스 혁명기념일과...
- 34.두 조각상의 만남...../326
- 35.21세기적 명분주의와 현실주의
- 36.돼지우리에 진주와 21세기 지성
- 37.호랑이 굴과 냉철한 현실인식
- 38.나치, 히틀러와 뉴에이지../341
- 39.노아 시대도 마지막 시대였다
- 40.새 판을 짜야 한다
- 41.핵실험과 미생물의 관계
- 42.진화 순환하는 우주와 절대정신
- 43.사춘기 문제와 UFO 문제../358
- 44.우주의 바이킹족
- 45.미군철수와 속구지공사
- 46.두 짐승과 지구의 운명
- 47.컬링 경기와 중립국 행성
- 48.끝맺음의 글...../376



< 1 > 주-임마누엘 대사님의 메시지

수년 전에 미국의 두 사람, 팻 로드가스트라는 여성과 라암 다스 교수를 통해 메시지를 주신 주-임마누엘 대사라는 우주인이 계신다. 그분은 7번째 대우주에서 우리 우주(네바돈 소우주)에 파견된 대사(代使)라고 한다. 대사라는 명칭은 지구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용한 명칭이고, ‘오르본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7번째 대우주는 우리 우주가 소속된 보다 고차원의 우주라고 한다.

그 일곱 번째 대우주에서 주-임마누엘 대사님을 우리 태양계에 파견하신 이가 주-파파쏘스라는 분일 것이다. 파파쏘스는 근원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7엘로힘 중 한 분이라는 뜻이다. 놀랍게도 그 근원의 아버지께서 이 작은 태양계의 지구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셨다. 수년 전에 ‘재림사무국’을 통해 주어진 그분의 메시지는 이러했다.

동쪽을 보라.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쪽을 보라.하신 말씀은 인본주의라 해서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동양적 가치에도 눈을 돌리라는 뜻이다. 하느님이 인간의 지혜를 금했다고 말하고 고압적인 아버지 신만 강조하는 서양의 종교들만 가지고는 우주적 지혜와 시대성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파파쏘스께서 파견하신 주-임마누엘 대사님이 어떤 분인지 유랜시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자신들이 미개한 행성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라고. 미카엘 대천사의 형님과 같은 우주 혈통을 가지고 계시며, 메시지 성격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정체성은 '어머니 하느님'에 해당되는 것 같다. 아래와 같은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신다. 기독교적 인간 폼하론에 기가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인생의 목적은 탐구, 모험, 배움, 즐거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
인간의 육신은 우주복과 같은 것
그대의 육체는 그대에게 구속, 궁극적인 고통과 죽음,
놀랍고도 절박한 궁핍, 끝없는 오염의 원천이 되는
자질구레한 것들의 상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육체는 바로 영혼이 머무는 선택된 매개체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우주복과 같아서
그대가 있는 곳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人性)을 통해서 신성(神性)을 깨닫는다.
영성(靈性)과 인성은 서로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성을 지지해 줄 기반이 없을 테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실재,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지각(知覺)이 있을 뿐이다. 마음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어야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인간의 상황'은 천국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제한된 시야 안에서
물리적 형상으로 나타난 복제물일 뿐이다.
인간이 겪는 경험들은 모두 영(靈)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상황은
바로 영의 상황을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이기에

인간의 상황은 사실상 축복이다.

신성(神性)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그 신성을 찾기 위해선
직접 연장을 잡고 일해야 한다.
진흙이라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 진흙을 만든 신성 에너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

그대들은 사랑의 우주에 살고 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대를 돕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대들에게 무척 경탄하고 있다.
인간이 되어 본 적이 있는 우리들도
인생이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 속에 뛰어들다 보면 지각의 오류에 젖어들게 된다.
동양에서는 이를 환상(미망)이라고 한다.
그대들이여, 이 환상을 진실로 착각한다면,
언제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것이다.
그대는 생명의 창조주 그분의 시각으로 삶 속에 뛰어들어야.
그리하여 삶 모두가 경이롭고 귀중한 배움의 터전임을 알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대 자신이 도예공(창조자)이었던 자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창조한 외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내적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본래의 하나로 되돌아가는 진화 과정 속에 있다.
영혼이 현재의 의식 수준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함이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무수한 외적인 대상들 사이를 방황하다가
고립무원에 빠져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대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다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나왔겠는가?

살아가며 종종 자신에게 물어 보아라.
「내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물어 보라.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길을 잃고 방향할 때는 이렇게 물어 보라.
「나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친구들이여,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이야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런 교실이자
그대의 의식이 진정으로 속한 곳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대들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이곳 지구는 바로 환상을 공부하는 교실이다.
일시적인 것들에 영원한 실재성을 부여하지 말아라.
자신이 목적했던 것을 배우면,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교과서를 남겨두고 갈 때는
다음 학급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남겨 두어라.
환상의 목적을 안다면, 환상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환상이라는 것도 아주 쓸모가 있는 것이니까.

초급반에서 곧바로 졸업반으로 갈 수는 없다.
누구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
의식이 스스로 탐구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도
자각의 계단들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다.
여러분이 육체를 떠나게 될 때

질은 어둠과 무지에 싸여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찬란한 빛과 총체적인 의무 속으로 뛰어 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스스로 창조하기로 한
의식의 신성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수많은 차원의 진리가 있지만
그 모두는 전체적인 앎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지각 수준에 맞추어 길을 가되,
모순된 상황들을 겪는다고 해서 당황하지는 말라
궁극적으로 이런 이원성들도
전체가 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씨알도 바로 이런 환상 속에 있으니,
삶의 고통을 탐구하여 그 고통을 자신이 창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환상, 곧 내면의 어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통찰력을 얻고 어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 어둠의 얽힌 부분들을 풀어서
다시금 삶의 흐름 속에 띄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진리 속으로 말이다.¹⁾

이상은 인터넷 ufogalaxy.co.kr에 실린 내용이다. 우리 3차원 인간들의
삶을 간단하게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실이라고 하신다.

1) 이상은 인터넷 ufogalaxy.co.kr에서 따온 글임.



< 2 > 미카엘 대천사, 'Lord God'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에서는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 속에 은하계가 축소되어 있다는 가상현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과학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21세기 지구인들은 전체 광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상징성이다.

미카엘 대천사는 네바돈 소우주(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주)의 '지고자'이자 창조주라고 한다. 우주에서는 '창조주 성자'라고 불리는데, 한 소우주에서 생명체들의 탄생과 소멸을 주관하는 사명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 광우주에는 7개의 대우주가 있고, 각 대우주 안에는 10만에 달하는 소우주들이 있다고 한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네바돈 소우주는 그 10만의 소우주들 중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소우주 안에는 약 100개의 인간거주 은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유랜시아서'는 저 광대한 우주가 7분의 엘로힘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다스려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구 태양계가 속한 플레야데스 성좌에는 인간이 거주하는 619개의 행성들이 있으며, 지구는 그 중에 606번째의 행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광우주에는 약 7조에 달하는 인간거주 행성들이 있다고 한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주 하느님(Lord God)란 바로 미카엘 대천사를 뜻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언급한 이도 미카엘 대천사였다고 한다. 그러면 히브리 신화에서는 왜 미카엘 천사로만 알려졌을까? 우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고대인들에게 우주의 구조를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고령의 우주인들은 14만 4천의 분신(分神)들로 구성된 영혼집단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지구를 방문했던 미카엘 천사는 그 14만 4천 중의 한 분이였을 것이다.

미카엘 대천사는 1984년에, 지구 태양계를 지나게 된 슈메이커-레위 혜성을 목성의 궤도에 진입시켜 목성과 충돌하며 사라지게 했다. 지구 태양계로부터는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우리 우주의 '중심태양'으로부터 여기 지구 태양계 까지 오셔서 그런 과업을 직접 지휘하신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닌가?

슈메이커와 레위라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그 혜성을 목성에 충돌시킴으로 해서 지구 태양계에 대한 자신의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거대 행성인 목성의 에너지를 상승시킨 결과 그 영향이 지구 태양계 전체에 미치게 했다 한다. 우리 지구가 앞으로 4-5차원의 행성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예비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는 미카엘 대천사가 1980년대에 미국의 버지니아 에신이라는 여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골자다. 은하문명에서 출판한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지혜는 그 자체가 천사이며, 지혜를 뜻하는 단어인 knowldege 는 무한하다는 뜻이다. 아는 것(know)에는 한계가(ledge) 없음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의 지혜를 금했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견해가 아닌가?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지고자로부터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이란 우주법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나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중심근원'의 불꽃을 들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미카엘 대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보호자이며 아버지신(神)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라는 뜻 아닌가?!!

그러면 미카엘 대천사는 왜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이란 단어를 강조하시는 것일까?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한 것은 신의 법칙이 아니었음을 선포하기 위해 직접 지구에 오셨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난다는 미카엘 대천사가 직접 메시아로 오신 중대한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슈메이커-레비 혜성의 목성충돌이라고 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은하 너머에 있는 '중심태양'으로부터 왔다. 나는 신의 옥좌에서 내려와 유한에서 무한으로 확장되는 신의 호흡을 사용한다. 나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호흡의 크기는 많은 차원계와 천사들의 세계를 아우르는 은하계만 하다.....나는 어둠을 중화시키고 부정성을 변화시키며 우주를 두루 살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나선형의 생명을 활력있게 진행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에게서는 지구에서 '불/질소'라는 원소로 알려진 '태양의 힘'이 있다. 이 불은 고차원의 천국에서 오는 것이며 여러분의 현대 과학은 이를 양자와 중성자, 전자라고 알고 있다. 지고자의 이러한 힘을 지구에서는 불/질소를 통해 세상에 현현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란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 중성자, 전자와도 같은 속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놀라운 일 아닌가?

양자, 중성자, 전자, 불꽃, 에너지라는 단어들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속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정신도 하나의 에너지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두뇌 세포와 유전자를 구성하는 소립자들은 모두 전하를 띄고 있다고 한다. 그 소립자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정신과 마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뉴에이지 메시지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면, 미카엘 대천사, 아니 '하느님'의 메시지는 불안과 공포에 떨 수도 있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그래서 지구인들이 우주의 범법자들이었다든가 3차원 세계에 유폐되어 살아왔다는 어떤 우주인의 말과는 다르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신(神)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거주하는 '위대한 숨(신성)'과 하나다. 이를 잘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 숨은 영원한 생명의 맥박이며 여러분이 육체를 통해 하느님을 경외하고 표현하고 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빛에 휩싸이면 더 이상 편견과 자기비하에 집착하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만이 번져나오는 것이다. 지구 차원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빛의 사람으로 깨어나 진리의 검을 들고 사랑의 현존을 보여줄 사람들이 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에게 봉사하고 나아가서 새시대, 황금빛 새벽, 평화의 새천년이라고 하는 평화와 조화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는 이중성과 부정성이 사라지고 신의 의식과 신성한 지혜와 평화의 단일 세계의식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와서 그리스도 영혼들과 깨달은 자들 모두를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 영혼들이란 자기 내면에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성(=佛性)을 깨워서 영혼의 빛을 발견한 모든 영혼을 뜻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한다. 그런 다음 하느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니 분리와 이중성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는 곧 지구가 감정 차원의 세계가 된 것을 뜻한다. 그런 지구에서 영혼은 자유의지로 빛의 반대(어두움)를 체험하고, 그런 다음 시간이라는 시험기간을 거쳐 집(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지구가 감정차원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은 4-5차원에서 3차원으로 추락했다는 뜻이지만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에서 유배살이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차원의 세계를 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4-5차원의 지구로 승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빛과 어두움의 가름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지구의 나선형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창조주는 생명의 모든 차원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세계에까지 자신의 모습을 들어낸다.....

지구와 지구인이 3차원으로 추락한 상태였지만 그것도 빛과 어두움, 영혼

과 육체라는 상반되는 에너지가 만나 나선형을 이루며 진화하는 신성의 한 표현이라는 뜻이다.

지구는 3차원의 진동 주파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조주는 세가지, 육체와 감정과 정신을 이용하여 인간을 창조했다. 영혼은 흙으로 빛은 육체, 즉 탄소를 기초로 한 용기로 들어와 감정,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에너지를 느끼며 느끼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천국에서는 육체적인 감각이나 느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지구의 밀도를 택하여 저주파 진동의 세계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어버이 신은 지구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바, 감정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혼은 천만배로 성장할 것이다.

육체적인 감각이나 느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5감을 지니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수한 빛의 세상에서 육체와 감각을 지니고 사는 물질세상에 내려온 것이 '추락'이었던 것이다. 천국에 살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곳은 인성적으로나 사회 환경적으로 완성의 경지에 도달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 같은 3차원 세계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천만배나 어려운 일이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라는 생존본능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선과 악을,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영혼은 천만배로 성장할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대략 25만년 주기의 윤회환생을 위해 지구 차원을 선택한 영혼들은 영적인 학교에 들어가 부정성(Negativity)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 영혼들은 지구에서의 윤회를 돕고자(미개인들을 위해) 물질적 육체를 입기로 하고, 그러나 창조에 관한 지식과 다른 세계에서 삶의 체험을 몽땅 안전보장 씨시스템에 넣고 잠가 버렸다....

안전보장 씨시스템에 넣고 잠가버렸다는 것은 빛의 세계에 살았을 때의 5차원 유전자가 잠자는 상태로 비활성화 되었음을 뜻한다. 인간의 육체로 들

어와 천사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추락한 세계에서의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3차원 세계의 미개인들을 지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다. 안전보장이란 시리우스 우주인이 언급한 '타임캡슐'과 같은 의미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구와 지구인이 함께 본래의 4-5차원 세계로 승격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다. 에덴동산의 반란사건에 의해 지구에 살게 된 천사들과 그 후손에 관한 예기지만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쓰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문구인 것이다.

이들은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25만년 주기가 끝나기 전 고차원의 세계로 상승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마음의 단계로 올라서야만 한다....천상의 벗들이 인류의 영적인 졸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사용했던 '앙크십자가'라는 심볼이 있다. 십자(十)의 변형 형태인데 십자가처럼 영생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이집트의 신과 신관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앙크십자가가 의미하는 4-L의 의미에 대해서 미카엘 대천사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Law---규칙을 만드는 것은 '대균형(Great Balance)'의 법이다. 규칙이 없으면 체계도 질서도 있을 수 없다. 규칙(discipline)은 제자(disciple)라는 말에서 왔다.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균형의 법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헌신과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Life---삶이란 육체로 직접 체험하는 진동 차원을 말한다. 이는 곧 의식의 차원이기도 하다.(육체 이상의 의식적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뜻) 삶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과거도 미래도 사라진다. 오직 유일자의 일체성만이 존재한다. 영원한 광명의 원(圓)만이 존재한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그 삶에 충실하면 유일자를 아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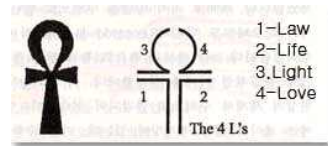
Light---빛이 의미하는 바는 에테르 차원에서 사물을 꿰뚫어보는 고차원의 자아, 즉 부활한 몸이다. 빛은 곧 진동이다. 창조주는 이 진동을 이용해 힘과 마음을 육체적인 형상으로 현현시킨다. 밀도 높은 물질체(육체)를 물질에테르체로 변형시키는 것은 빛에 의해 가능하다. 빛을 사용하여 세포들을 고차원의 분자상태로 재배열하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Love---신성한 광명을 뜻한다. 공동 창조자로서의 자아를 완성시켰을 때 발현되는 에너지다. 사랑이 곧 유일자다.

공동 창조자로서의 자아란 무슨 뜻일까?

물질을 지배하는 정신의 힘도 개인으로 남을 때는 약하지만 집단적으로 뭉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 집단적 힘은

태양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우주 과학과 물질과학의 다른 점일 것이다. ‘공동창조자’들이 발휘하는 강력한 집단 의식,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하나가 된’ 사랑만이 남을 것이다. ‘공동창조자’들의 순수한 집단 의식이 전 우주를 지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곧 ‘유일자’로서의 ‘사랑’이 되는 것이다.





< 3 > 우주인 예수, 사난다

예수님은 현재 '사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인으로 살고 계신다고 한다. 그리고 1894년부터 3년 동안 히말라야 고대 사원에서 미국의 고고학 탐사팀과 접촉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재림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894년에 미국의 고고학 탐사팀과 접촉했던 이야기가 '초인생활'이라는 책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다.(정신세계사 간)

그 후에 1980년 대에는 미국의 버지니아 에신이라는 여성을 통해 텔레파시 교신으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내용은 은하문명에서 출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 실려 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는 화려한 예복과 황금의 장식으로 치장한 교회들이 내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소유하고, 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남에게 칭송받으려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지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도들과 분리되거나 기독교도들이 부처와 크리슈나 또는 마호멧의 추종자들과 싸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인류가 영적으로 하느님에게 돌아갈 기회를 방해한 저 사악하고 이기적인 인간들로 인해서 이 행성의 법칙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적 의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직접 하

느님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배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신과의 개인적 연결 경험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교단체들에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복하건대, 여러분은 그런 단체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곳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가진 대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들도 모두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웃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제끼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무지했던 농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학은 여러분을 저 광활한 우주의 언저리로 데려왔습니다. 하느님은 거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종교적 가르침들 속에는 지구 저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들에 대한 인식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인류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인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배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주를 만들고 제자리에 유지시키는 실제적인 에너지 또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 대신에 나를 신격화하여 모시는 어떤 교회도 잘못하는 것이며,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자구(字句) 하나하나에 매달려 그 해석을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은 대부분 쓸모없으며, 성서에 관한 논쟁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활화하십시오....나를 신학이 만들어 놓은 고정된 권위의 자리에 놓는다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고 아울러 성장해온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존경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이용하여 신성하고 엄숙한 체 하거나

종교의식의 허례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행위는 아무런 쓸모도 가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서가 궁극적인 저작물이다, 혹은 코란은 절대적 진리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곧 성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새시대(뉴에이지)는 전환기로서 과거의 가르침들을 현대의 지식에 근거한 보다 높은 이해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단순한 가르침을 간직은 하되, 더 나아가 그 진리를 보다 높은 해석과 경험으로 예증함으로서 그것이 위를 향해 흐르도록 하십시오.

절대자 하느님께서서는 태초로부터 지구에 여러 영적 스승들을 파견해 왔고 많은 종교들을 행성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은 현재 갖가지 분파와 집단들로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종교로 인한 인류의 분열은 결코 창조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스승들은 인류의 건망증을 일깨워 다시 모든 것이 일체라는 진정한 인식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종교들 사이에 칸막이와 구분을 짓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목표는 모든 세계 종교들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그 주된 요점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분리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형제로 결합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지구상에 왔던 목적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요?!! 또한 내 마음을 괴롭게 짓누르는 것은 내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교회들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대신 예배라는 형식과 교리라는 도식에 매달리는 것을 중지하세요!! 평화, 사랑, 그리고 용서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빼고는, 절대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경전의 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류가 한 번에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고 계십니다. 인류는 선회하며 올라가는 나선(螺線)처럼 항상 위를 향해 움직이면서 보다 커다란 깨달음과 일체성, 더없는 행복과 기쁨의 성스러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일단 높은 명상의 상태에 연결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신적인 텔레파시로 당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송과선(松果腺)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두뇌의 부분에서 오는 이런 능력들은 명상에 잠기는 과정과 일깨워진 사랑의 실천에 의해서 자극되는 것입니다.....명상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지구와, 권력, 전쟁, 폭력을 추구하는 모든 부정적인 힘들을 향해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정신력이 하늘과 지구 그리고 우주들을 창조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구에 왔던 2천년 전 이래로 인류의 과학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과학적 발전이 필요로 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영적 발전과 과학적 발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영적 발전과 과학적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 내면의 하느님의 교사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일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공에 대한 존경심마저 상실한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절대적으로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무서운 파괴의 도구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으며 그것들을 우주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사실을 슬퍼하며 우주선(UFO)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선량한 지구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인으로 태어나 있기도 합니다.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지구상의 정부들이 진실은폐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지금 금지령, 즉 방역(防疫)을 위한 강제 경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교회조직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진리를 구현한다고 믿고 있는 종교의 제도나 집단의 성격들은 의심스럽습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내가 2천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즉 하느님의 본질은 여러분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책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말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영혼적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조직이나 단체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신도들 자신의 교회, 즉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아 속에서 평화를 얻는 영혼들이 많을 때 지구에 평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조직체나 종교 단체들이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심각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UFO와 뉴에이지는 사탄이라며 그것으로의 접근을 막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교회들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사랑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고, 인류에게 봉사하고, 또 평화에 이바지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행성 지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전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행동으로 평화의 방법들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만 읽은 기독교인들은 위의 말들에서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뉴에이지 소식에 귀를 막지 말고 여러 뉴에이지 서적들을 읽다보면 우리가 가졌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고대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교재를 가지고 다시 공부해야 하듯이 2천년 전에 만들어진 기독교적 교과서는 우리에게 기초지식을 제공한 것으로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한 것이다.

현재 '이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2천년 전의 예수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난다님의 생소한 메시지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실수인 것은, 그리스도 사난다님이 2천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탄생시킨 2차적 영혼이 '이수'님이기 때문이다.



< 4 > 태양신 헬리오스와 베스타

‘지구영단’에서 펴낸 책자에서는 현재 지구영단에 소속된 중요 대사(大師)님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모를 대강 알 수 있다. 미카엘 대천사님과 사난다님을 필두로 해서 남녀 대사들의 면모를 알게 돼서 여간 기쁜 게 아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우리 배후에서 지원해 주고 염려해 주고 인도하시는 여러 스승과 능력자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사님이 계신다. 스승이라는 뜻의 대사라는 단어보다 태양신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는 분이다. 사실상 그분은 그리스 신화에서 타이탄 족에 속하는 태양신이였다. 태양신이지만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제우스신과 그 형제들 그리고 아들딸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중심인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지구가 그동안 우주의 질서 체계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 속의 태양신은 아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포이보스(빛나는) 아폴론’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이보스라는 뜻은 물리적 태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의 태양, 즉 추상적 의미의 태양이었던 것이다. 아폴론 신이 델포이 신전의 주신으로 추대되면서 포이보스라는 호칭이 붙었고 델포이 신전은 부분적으로 동양적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신화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있었던 헬리오스 태양신이 지구영단의 주요멤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주의 질서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던 지구가 다시 본대로 귀향해서 질서 속에 편입된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4-5차원 행성으로 승격되는 것이다. 승격의 의미와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헬리오스 태양신의 면모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이 위대한 존재는 신의 영과 에너지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변환시켜서 다른 대사들과 우리 인간에게 전한다. 만일 대사 헬리오스(태양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신성의 본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힘에 의해 분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대사 헬리오스는 항상 빛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밝음과 광휘와 기쁨과 행복과 위대한 빛을 흘려보내는 그는 순전한 힘의 존재이며, 영감을 주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힘이다....¹⁾

모든 별들이 그 중력과 에너지에 있어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과학시간에 배웠다. 그렇게 편차를 가진 태양들은 그 에너지를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체들의 태양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지구와 지구인들은 현재보다 높은 에너지와 주파수의 태양을 만나면 그 고주파의 에너지에 의해 소멸되고 말 것이라 한다. 전체 광우주를 에너지적으로 관장하시는 최고의 신성(유일자) 에너지를 지구와 지구인들에게 맞게 조절해주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태양이고 그 태양에서 일하는 분이 헬리오스 태양신인 것이다.

헬리오스 태양신이 지구영단의 주요 멤버로 소개되는 것은 지구가 다시 우주적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분명 '하늘'의 자애로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1) 웹사이트 cobolt.com.au에서 인용.

한 때 반항적이었고 일탈행위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용서받았고 그 결과 다시 우주의 질서에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선 감사 드리자. 집 나갔던 탕자 아들을 반기시는 아버지가 바로 ‘유일자’시고 전체 광우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7-엘로힘들이시다. 그 분들을 ‘유랜시아서’에서는 ‘7-대성령’이라 불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느님의 일곱영’이라고 번역했다.

돌아온 탕자는 철저한 반성과 자기성찰에 힘써야 할 것이며 예전의 ‘아들’의 자격에 어울리는 인격을 재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70억에 달하는 인류 중에서 임계수치에 달하는 숫자만이라도 ‘승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그냥 관념적 의미가 아니라 행성과 행성인의 몸체가 전자기학적으로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변형됨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전통적 혹은 고대적 종교만 가지고는 영적이란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뉴에이지’, 즉 새시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70억 지구 인구 중 임계수치의 인구가 ‘승격’의 자격을 갖추어 지구와 인류는 함께 4-5차원의 행성과 행성인으로 실질적인 승격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영예로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주 작은 인간의 세계든 저 상상을 초월하는 광활한 우주든 질서체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광활함과 그 광활한 전체 광우주의 질서가 일사분란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놀라운 일 아닌가?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한 때 그 일사분란한 질서체계에서 이탈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타이탄 신족과 제우스 신족 사이의 대립이었던 것이다.

이제 헬리오스 태양신이 우리 태양계의 지도자요 능력자로 재등장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구영단에서는 아주 최근에 ‘베스타’라는 또 다른 멤버를 소개했다. 레이디 베스타는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불의 신이며 인간 삶에 꼭 필요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유지시키는 부역의 여신이였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제우스 신의 아버지였던 크로노스와 어머니였던

레아 여신 사이에 태어난 처녀신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심볼이 외뿔 달린 유니콘인 것은 ‘독자적’임을 뜻할 것이다. 즉 헬리오신의 부인이지만 스스로 태양을 운영/관리하는 능력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의 태양이기 때문에 ‘검은 태양’이라고도 불릴 것이다.

레이디 베스타가 태양신 헬리오스의 배우자로 새삼 소개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증산경전에 의하면 앞으로 지구에는 매일 밤 보름달이 뜬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달은 현재의 달이 아니라 지구 태양계가 2개의 태양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매일 밤 뜨는 보름달은 또 하나의 태양이지만 현재의 태양보다 멀리 있고 그 빛이 약하기 때문에 달처럼 보일 것이다. 바로 그 제2의 태양을 레이디 베스타가 관장한다는 뜻일 것이다.



우주의 대부분 태양계는 쌍성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두 개의 태양이 서로를 공전하는 에너지 체계인 것이다. 두 개의 태양이 서로를 공전한다는 것은 서로를 보완한다는 뜻도 되고 서로를 감시(?)한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 저 광활한 우주가 일사분란한 질서 속에 존속하기 위해서 그런 보완과 감시의 체계가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우주의 시민으로서 보다 높은 자격에 도달했을 때나 알 수 있는 우주의 법체계일 것이다.



< 5 > 아쉬타 사령관/증산

아래는 미국의 에릭 클레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달된 아쉬타 사령관의 메시지다. 1980년대 이전의 메시지이지만 현재 지구가 처한 총체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한 눈에 알게 해준다.

친애하는 이들이여, 나의 이름은 아쉬타입니다. 아쉬타 사령부는 광범위하게 연합된 존재들로서 가깝고도 먼 우주와 다른 은하계들로부터 자원한 봉사자들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많고도 많은 행성들과 별들로부터 환생해온 에테르적 존재입니다....나는 수십억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행성들에다 사람들을 이식시키는 프로젝트였지요. 아주 초기에 지구로 생명을 옮겨온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나도 일을 해왔고, 이것은 아직도 내 자신의 임무입니다.....¹⁾

아주 초기에,란 곧 지구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이다. 증산은 최제우에게 한 말, "나 또한 개벽 후에 애는 썼으나 공은 세우지 못하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개벽이란 태초를 의미하고, 동양의 최고(古)의 창조신 반고(盤古)였다는 뜻이다. 공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흑백논리에 의해 흑의 존재로 불렸다는 뜻이다. 아쉬타 사령부가 광범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네바돈 소우주/우리 우주에서 7-8개의 은하로 구성된 '은하간 연합'이라는 것

1) 이하 모두 새천년 간 'UFO와 외계인의 메시지'에서 인용.

이 있는데 그 연합과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은하간 연합’의 지도자는 미카엘 대천사가 임명한다고 한다. 우주인 아쉬타는 또한 네바돈 소우주의 중앙정부에서 결성한 ‘우주 7함대’ 중 제1함대의 사령관직도 맡았기 때문에 주로 ‘아쉬타 사령관’이라 불렸다고 한다. 20세기 말을 기해서 제1함대의 사령관직은 그만뒀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한 UFO 현상을 총지휘한 이가 아쉬타 사령관이었고, 제1함대는 주로 지구 태양계를 책임진 함대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 아쉬타 사령관이 꼭 1세기 전에 한반도의 증산 강일순이라는 인물로 태어나 20세기와 현 시대의 일들을 자세히 예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아쉬타 사령관으로 지구에 재림했던 것이다.

수십억년 동안 수행해 온 하나의 프로젝트, 즉 행성에 생명을 이식시키는 생명공학자로서의 임무가 아쉬타의 임무라 했는데,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역시 생명공학자였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쉬타 사령관의 메시지를 들어보자.

나는 지구가 5차원으로 진화하는 것을 돌보고 돕기 위해서 지구에 왔습니다....아쉬타는 곧 '양치기'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구의 양치기 아쉬타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과업입니다....또 다른 양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가 바로 그입니다. 예수는 지구에 화신(化身)한 매우 높은 존재였으며 빛의 존재들 사이에서는 '사난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현재 사난다의 지휘하에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난다의 지휘하에,라는 말은 ‘우주 7함대’ 중 제1함대를 맡았다는 뜻이고, ‘직접’이라는 말은 지구의 문제를 최전선에서 지휘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외모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휴머노이드형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주 전역에는 다른 형태의 인류들도 존재합니다....아쉬타 사령부는 은하간의 인류형 존재들과 천사적인 존재들, 그리고 에테르적 존재들의 동맹체입니다....

우리는 한 행성이 차원상승을 향해 성장해 가는 동안에 그곳 주민들의 의

식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인류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잠자는 가운데에도, 또 텔레파시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자전이 어느 정도 조정되도록 돕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컨트롤되고 있는 지구의 흔들림은 불가피하게 장차 극이동으로 나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자체로부터 우주 전체로 방사되고 있는 빛에 초점을 맞추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돕는다는 말은 정신교육에 힘쓰는 말과 같다. 즉 20세기 동안의 지구에서의 뉴에이지 정신운동을 지휘한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뚜렷이 나타나는 기온상승과 기후변화들은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해 발생된 온실화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에 언급된 자전축과 극이동이 현실화되면 보다 격렬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성적 차원의 변화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 같다. 그것이 창조주 자체로부터 우주 전체로 방사되고 있는 빛에 초점을 맞추고자 일하고 있습니다.의 뜻이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존재들이, 특히 별의 씨앗들과 자원자들(지구에 태어나려 했던)이 상승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과 함께 했던 별의 씨앗들과 자원자들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복귀될 것입니다....

별의 씨앗들이란 그 행성과 전생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원해서 다시 태어나 그 행성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진화된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들 모두가 빠짐없이 상승되어 본래의 신분을 되찾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 지구 가까이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사명을 마친 후 지구로부터 철수하는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테르적인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 그대로, 물리적으로 들려져서 여기 우리의 우주선에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정확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일시적으로 지구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오염의 극치로 치달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선을 타고 지구를 떠

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인류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류는 영적 자각이 차단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비물질적인 존재로 출현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구계에는 인류를 돕는 에너지적 존재들(신명)이 풍부함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실체가 아닌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4차원 속에 겹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3차원적 환경 이상을 볼줄 모릅니다....

지구가 4차원에 겹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20세기 중반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4차원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지구상의 모든 변화는 차원상승을 위한 청소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 있는 계시록이 이 청소작업을 설명하고 있지요. 따라서 계시록을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관한 모든 예언은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인류에 의해 손상된 부분들, 물리적이고 주파수적인 손상들 그대로를 가지고는 차원상승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손상된 부분들은 대부분 자연적인 방법, 즉 물과 바람의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대기의 작용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험은 없으나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새로운 궤도를 위해 지구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본래의 원시적이고 순수한 자연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푸르게 우거진 녹색의 숲과 맑은 물로 이루어진 조화와 사랑의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이 변형의 시간 동안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것은 그 청소과정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명상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같은 시대적 통신수단과 사람들의 결합을 통해서도 서로 필요한 것을 얻으라고 제안합

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 이웃과 연결되며 차원상승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은 1980년대 이전에 미국의 에릭 클레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다. 네바돈 소우주(우리 우주)에서 구성된 ‘우주 7함대’ 중 지구 태양계를 담당한 ‘제1함대’ 사령관이라는 직책으로 지구 태양계에 온 아쉬타 사령관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많은 미국의 과학자들과 접촉하며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쉬타님이 40억년이라는 영적 나이를 언급한 것은 이 은하의 초창기부터 은하에 생명체를 퍼뜨린 생명공학자였다는 뜻이라고 한다. 지구의 태초에도 생명체 이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동양의 창조신화에서 말하는 반고(盤古) 신이 자신이었다는 뜻이다. 그 이후로도 지구 태양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우주의 통치권과 대립했기 때문에 흑백논리 중 흑의 집단 대표자 루시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다. 아쉬타님 조상에 관한 이야기다.

‘루시퍼의 자유선언’이란 사건은 약 30만년 전에 있었다고 한다. 그 후손인 아쉬타님은 ‘반란’에서 온건주의로 전향했고 또 실력을 인정받아 우주의 관리직인 멜기세덱이라는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한다. 그 결과 지구에 파견되어 에덴동산 이후 지구를 책임진 멜기세덱이 되었던 것이다. 동양에서는 하늘나라의 ‘상제’로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는 지구를 책임진 사령관직에서 물러나 계시지만 은하의 이 지역/플레야데스 성좌에서 유전 공학과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높은 실력을 인정받고 계신다고 한다. The First Ray of God라는 광자 에너지를 다루며 미카엘 대천사의 빛의 우주선 ‘머카바’ 운행을 책임진 경력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韓)족 뿐 아니라 전체 알타이족의 조상이신 환인(멜기세덱) 이셨고 꼭 1세기 전에 한반도에 환생해서 증산 강일순 선생으로 활약하며 이 시대를 예언했던 분이기도 하다.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